

트럼프 정상회담 순위 밀린 日 ‘전전공공’

첫 회담 영국 메이총리 선택…멕시코·캐나다 順 될 듯
취임후 가장 먼저 만나 동맹 과시하려면 아베 체면 구겨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 국가라는 ‘타이틀’을 노렸다가 무산되자 전전공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 달도 안된 작년 12월 초 미일 정상회담 추진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이달 27일을 전후해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 흘러 나왔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 상대로 영국(26~27일)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에 이어 멕시코(31일)와의 정상회담 일정마저 확정되고 트럼프 취임 이들이 경과한 23일에도 미일 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자 일본의 조바심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정권의 미국과도 동맹관계가 굳건하다는 사실을 대외에 알리고 이를 국내 정치에서 내각 지지율 상승에 이용하려던 일본 정부로서는 초반부터 체면을 구긴 셈이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초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해서 우선 순위에서 캐나다에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정부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상회담이 늦어진 것이 (미국) 일본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 민진당도 공세에 나섰다. 렌호(蓮

舫) 민진당 대표는 전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신속하게 회담을 했지만 한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이탈을 표명해서 부끄러웠다. 도대체 무슨 신뢰관계를 구축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를 첫 정상회담 상대로 정한 것에 대해 두 나라 사이의 특별한 동맹

관계가 있다고 애써 강조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과 영국의 동맹 관계는 각별하다. (영국을 첫 정상회담 상대로 정한 것이) 미일관계에 주는 특별한 영향은 없다”는 일본 외무성 내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전했다.

트럼프의 우선 순위에서는 밀렸지만, 일본 정부와 여당 자민당에서는 미일 동맹의 견고함을 강조하며 조속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22일 기자들에게 “꼭 주요국 중에서도 빠른 단계에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도 같은 날 NHK에 출연해 “(미일) 정상회담을 빨리 실현시켜 양국의 의견교환을 빈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 이처럼 목매는 이유는 외교 안보와 무역 등 다양한 방면에서 향후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신문은 TPP 탈퇴는 예상한 범위 안에 있었지만 외교 안보면에서는 트럼프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여를 어느 정도 중시하는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함께 백악관 고위 참모진 선서식이 22일 (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지난해 출생아수 2000년 이후 최대

1786만명…두자녀정책 성과

중국의 지난해 출생인구가 1천786만명으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3일 중국 국가통계국과 국가위생계획 생육위원회(이하 생육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한 신생아는 1천786만명으로 2003~2013년 1천600만명 안팎이었던 출생인구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생육위는 지난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임여성 수가 500만명까지 감소한 상황에서 출생인구가 분명한 증가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출생한 둘째 이상 신생아 수는 동기 대비 10여% 늘어난 800만명으로 전체 신생아 중 45%를 차지했다.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 이전에는 둘째 이

상 신생아 비율이 30% 안팎에 머물렀다. 지난해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시행의 효과로 인구증가 둔화 추세가 한풀 꺾였지만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부담, 보육제도 개선, 육아휴직 보장 등 중국 당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중국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2015년 생육위에서 조사한 출산희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74.5%가 경제부담으로 둘째를 출산할 계획 없다고 답했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응답자도 60.5%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외동이면 두 자녀까지 낳도록 허용한 단독 두 자녀 정책을 2013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누구나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전면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연합뉴스

日 남중국해 주변 7국 간부 해상보안 연수

군사거점화 中 포위망 구축

일본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남중국해 주변 7개국 간부들을 상대로 해상보안정책 과정 연수를 실시한다고 산케이신문이 23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연수는 이들 국가 해상보안기관의 초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며, 해상에서의 범죄행 방범 등을 집중 교육한다. 이는 남중국해의 군사거점화를 서두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과정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도쿄에 있는 정책연구대학원대학과 제휴해 지난해

10월에 개설했다. 1년 코스를 이수하면 석사 학위도 받을 수 있다. 해양법 등을 공부하는 동시에 남중국해 주변 다른 나라 해상보안기관 간부들과의 교류를 심화시켜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도 일본측의 의도다.

현재 일본 이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4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현재 모집 중인 2기생에는 미얀마, 스리랑카 간부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시작하는 3기에는 태국도 합류하는 등 외국에서 총 7개국이 참가하게 된다. /연합뉴스

111을 기억할때 국가안보의 빈틈은 사라집니다
간첩·테러·국제범죄·산업 스파이 신고는 ‘111’



박종구의
中國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㉞ 북위를 건국한 탁발규

탁발규(拓跋珪, 371-409)는 중국 오호 십육국시대 북위를 세운 황제다. 전진의 부견이 383년 비수대전에서 대패한 후 죽자 하북의 혼란을 평정하고 북위를 세웠다. 말년에 폭정으로 아들에게 살해되었다.

그는 선비족 출신으로 대왕(代王) 탁발십인건의 손자다. 부친은 탁발식 모친은 하란부 출신 하씨 부인이다. 376년 전진의 부견은 대나라를 공격해 멸망시켰다. 그와 모친은 촉망으로 유배되었다. 비수대전 이후 일족인 유현이 대왕으로 즉위하자 정적인 그를 죽이려 하였다. 이에 모친과 함께 모친의 친가인 하란부로 망명했다. 386년 주변 부족 수령들의 추대로 위왕이 되고 국호를 북위로 바꾸었다. 내몽고 호화호트 남방에 해당하는 성락에 도읍을 정했다. 유현이 그의 숙부인 굴

이듬해 황제에 취임하니 도무제다.

황제에 즉위한 후 연호를 천흥으로 고치고 한족 대신 최광의 건의에 따라 모두 상투를 들고 관모를 쓰게 했다. 한족의 풍습을 채용한 것이다. 국가를 진흥코자 지식인을 널리 받아들였다. 오경박사를 두고 국자학과 태학을 기우니 학생이 3천명이나 되었다. 정복 지역의 주민 10만명을 평성으로 이주시키고 토지를 분배했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의 기초를 튼튼히 하였다. 공전과 종묘를 짓고 통일된 도량형을 도입해 행정체계를 정비했다. 중산, 업 등 요지에 행대(行臺)를 설치해 점령지 행정의 기초를 다졌다. 이에 새 왕조의 기틀이 잡히기 시작했다.

북위 왕조는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널리 보급된 불교를 적극 보호하였다. 당시 하북은 불교가 널리 전파되었고 유력한 승려가 수백명의 신도를 거느리는데 일부 호족은 일족과 함께

명군이자 폭군…아들에게 살해 당해

돌과 연합해 그의 세력을 외해시키려 했다. 이에 후연의 모용수에게 도움을 청해 유현을 공격했다. 선비족내 독고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모용수와 연합해 대승을 거두었다. 이후 오르도스 일대서 흉노계 부족을 평정해 대량의 인구와 가축을 획득했고 수도 성락 주변에 농경을 실시해 국력을 강화했다. 중국 북방 흉안령산맥에서 출발한 선비계 탁발부가 북중국의 유력한 왕조가 된 것이다.

긴밀했던 북위와 후연의 동맹관계가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북위의 부상에 위기의식을 가진 후연의 모용수는 진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자 탁발고는 살해되고 양국은 적대대중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도 일본측의 의도다. 현재 일본 이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4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현재 모집 중인 2기생에는 미얀마, 스리랑카 간부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시작하는 3기에는 태국도 합류하는 등 외국에서 총 7개국이 참가하게 된다. /연합뉴스

불교에 귀의했다. 이에 따라 불심을 잡는 것이 민심 확보의 관건이었다. 도무제는 불교 교단을 감독하는 도인통(道人統)이라는 직책을 만들고 승려 법과를 1대 도인통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불교 교단이 왕권에 예측되는 결과로 초래되었다. 법과는 천자를 ‘당금의 여래(如來)’라며 왕권을 따를 것을 천명하였다.

그는 명군인 동시에 폭군이었다. 도성 이전, 행대 설치 등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 등연, 왕덕, 왕헌 등 한인 사족을 등용해 적극적으로 한화정책(漢化政策)을 추진했다. 호적을 정리해 경작지를 나누어 주는 계구수전(計口授田)을 실시했다. 불행하게도 통치 말년에 접어들자 이유없이 왕족과 신하들을 살해하기 시작했다. 유약은 관복이 선정하고 아름다워 제왕같아 보인다는 이유로 살해되었다. 북위에 살던 모용수 일족이 망명하려하자 300 여명을 살해했다. 안색이 변하거나 결음결이가 이상해도 때려죽였다. 결국 황자 중 일인인 탁발소가 황제를 시해했고 태자인 탁발사가 즉위하니 명원제다. 도무제는 의제의 정치 간섭을 경계해 명원제의 생모를 살해한 바 있다. 명원제 때에 이르러 유목국가인 북위가 본격적으로 농업국가로 탈바꿈했다. 398년 도읍을 평성으로 옮기고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건물]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부근 남동측 토지 864.8㎡ 건물 1514.31㎡ 감정가 20억7천2백 ▶ 최저가 14억5천
- ★ [공장] 광주시 북구 일곡동 OB맥주 광주공장 부근 토지 1872.59㎡ 건물 1540.1㎡ 감정가 13억7천2백 ▶ 최저가 9억9천6천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초교 동측위치 평동 제1차 일반산업단지 토지 1662.6㎡ 건물 2547.76㎡ 감정가 11억1백 ▶ 최저가 7억7천1백
- ★ [건물] 목포시 석현동 가톨릭대학교 부근 병원건물 토지 12,096㎡ 건물 8,337㎡ 감정가 139억7천3백 ▶ 최저가 78억2천5백
- ★ [무인텔치적합]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관광단지내 포장도로점 토지 3,234.2㎡ 건물 4,280.8㎡ 감정가 37억8천7백 ▶ 최저가 12억4천1백
- ★ [건물]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11,546㎡ 건물 5,733.24㎡ 감정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장성 백이사거리인근 공장지대 토지 9,178㎡ 건물 5,842㎡ 감정가 36억5천5백 ▶ 최저가 16억3천7백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산업단지내 기아자동차출하사무소 서측 도로점 토지 2,911.9㎡ 건물 1,811.2㎡ 감정가 32억9천7백 ▶ 최저가 18억4천6백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최고의 투자가치 월수익 최상 (대기업 임대중) 토지 9,280㎡ 건측 2,885㎡ 매매가 170억
- ★ [토지] 나주시 봉향면 옥곡리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토지 23,147㎡ 매매가 평당10만
- ★ [토지]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주택, 과수원 (물류창고, 공장적합) 토지 34,000㎡ 매매가 상당후 협의가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층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상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토지 4,000㎡ 주택 28세대가능 상가 건물로 교환 원함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토지]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답 1,700㎡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가능 매매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차매매단지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
- ★ 광주근교 전원주택부지 다량보유

수익형 추천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 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 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 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8억
- ★ [건물] 광산구 첨단 롯데마트부근 지하1~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1,192㎡ 임대안고도 가는 매매 60억(협의가)
- ★ [건물] 광산구 공항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 6층 병원건물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2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 ★ [건물] 광주 북구 용동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럴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6억포함), 보증금 7천 월4백6십 매매 13억5천

공인중개사 장현준 010-3610-4039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 062-714-2258